

■ 교회소식 ■

1. **신년주일** :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1:30부터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는 동호회 모임이 매월 첫째 주일(오후 1:30)에 있습니다.
3.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신년 사경회가 1/2-5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4. **떼제기도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5. **임원교육** : 임원교육이 7일(토) 오후 3:00-5:00, 8일(주) 오후 1:30-3: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신천 임원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의무헌금** : 다음 주일에 의무헌금을 봉헌합니다.
7. **기부금증명서**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실(지하 식당 옆)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주차** : 오늘부터 선린학교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결혼** : 김민수 씨와 이슬기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7일(토) 낮 12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상민 씨와 송 샘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7일 오후 1시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출 17:1-7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한완식	류건형

1부 영접위원	박미연	헌금위원	하현철
1월 2부 영접위원	한완식 임주빈	이순용 고숙이 최현옥	김신실
2부 헌금위원		김인걸 정영선	

오늘 식당 봉사	박영신 김성순 조경숙 박미연 이수자 이미휘 김종락 설규범
다음주식당봉사	임정자 한선희 정연경 양경해 오슬기 신동완 이국노 홍윤선
오늘설거지봉사	4여선교회(51-55세) <b>다음주설거지봉사</b> 5여선교회(46-50세)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마음으로 읽는 글 ■

선물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 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서럽게 뱀 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의 햇살 받아 손바닥 뒤집는  
앞사귀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선물이고  
길 가다 발 밑에 깔린 이름 없어 가여운  
풀꽃들 하나 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험하게 생각지 마세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 나태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받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말 씬 ..... **의의 나무로 우뚝 서라** .....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새교우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되십시오. 불의와 부정의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뚝 서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 또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불의, 슬픔, 폭력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정의, 기쁨, 치유의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 ■ 믿음으로 읽는 글 ■

### 새해 아침의 기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뉘우치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먹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과  
남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던 불끈 쥔 주먹을 부끄럽게 하소서.  
남을 위해 한 번도 기분 좋게 열려본 적이 없는 지갑과,  
끼니때마다 흘러 넘쳐 버리던 밥이며 국물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소서.  
무심코 내뱉은 침 한 방울, 말 한 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까맣게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새해에는 부디 뉘우치게 하소서.

새해에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소서.  
내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새해에는 알게 하소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  
내 발 밑에 밟혀 죽는 작은 벌레와 풀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좋다는 것을,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좋다는 것을,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좋다는 것을,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것이 좋다는 것을 새해에는 분명히 깨우치게 하소서.

새해에는 연약한 것들을 아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손길을 주소서.  
빛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외롭고 쓸쓸한 것들의 옆에다 내 몸을 세워 주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장미의 화려한 빛깔 대신에

진달래의 향기 없는 향기에 취하게 하소서.  
울긋불긋한 네온사인 아래 부초처럼 떠돌게 하지 마시고,  
고요한 촛불 하나에 마음을 단단히 기대게 하소서.

새해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소서.  
갓 태어난 아기가 응아 하는 울음소리로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듯  
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사랑해요 라는 말이  
새해에는 기어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하지만 사랑해요 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고가는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하소서.  
사랑 때문에 헤어져 아프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다시 사랑의 연둣빛 싹을 틔울 수 있게 하소서.

저실업과 노숙의 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골목길의 어둠을  
새해에는 물리치게 하소서.  
사람 사이의 반목과 지역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우레와 같은 호통을 내려 정신이 번쩍 들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 동안  
잘 먹고 잘 입으며 살아온 사람들을 깊이 참회하게 하소서.  
그들이 통일로 가는 기관차를 가로막으려거든  
크게크게 기적을 울려 화해와 상생의 길을 함께 건도록 꾸짖어 주소서  
새날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발 벗고 찾아 나서야 오는 거라고,  
새해에는 자신 있게 말하게 하소서.  
썩은 물은 나가고, 맑은 물은 들어오게 하소서.

새해에는 떨림과 설렘과 감격을 잊어버린,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몸에도 물이 차오르게 하소서.  
꽃이 활짝 피게 하소서. 북소리가 똥똥 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얼음장을 뚫고 바다에 당도한 저 푸른 강물과 같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그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에게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소서.